

세천사 기별 연구

(조사심판과 늦은비)

불쏘시개 리더 강습회

2016. 5. 21(저녁) - 25(오전)

조 명 준 장로

창조전 하늘의 사건	계 12:7, 9	하늘에 전쟁
루스벨의 타락	계 12:7	사탄이 됨
하와의 유혹	계 12:9	옛뱀, 땅으로 내어쫓기니
B.C 605 – A.D. 476	계 13:1, 2	복합짐승
B.C. 4	계 12:5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 예수의 탄생
A.D. 31	계 12:1	해를 입은 한 여자 - 교회의 탄생
A.D. 538- 1798	계 12:6, 14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A.D. 1620-1776	계 12:16	땅이 여자를 도와 - 미국이 등장
A.D. 1798	계 13:3	교황권의 몰락
A.D. 1844	계 12:17	여자의 남은 자손 - 예언의 영 을 가진자와의 투쟁
A.D. 1925	계 13:3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옴
A.D. 1844	계 11:19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더라
A.D. 1844 이후	계 14:1-5	144,000의 탄생과 그 표준들
A.D. 1844 이후	계 14:6-11	세천사의 기별- 심판하실 시간(조사심판)
A.D. 1844 이후	계 13:15-18	짐승의 우상의 세워짐(일요일 강제 휴업령)
A.D. 1844 이후	계 15:2-4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이기고
A.D. 1844 이후	계 15:7-8	칠재앙의 시작
A.D. 1844 이후	계 14:14-16	전쟁 종결장 , 세상 추수 재림, 사형집행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2:17)

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무리에게 주신 **예수의 증거**(대언의 영 - 계 19:10)

계시록 12-15장 까지의 내용 속에서 선악간의 투쟁의 전 역사가 요약되어 숨겨져 있다.

투쟁의 최후 종점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은자손에게 계시록 12장~15장의 역사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최후의 투쟁의 무기를 주셔서 사탄과의 정면 대결장으로 보내신다.

이 영적 무기의 선물이 대쟁투 총서이다. 세천사의 기별 연구는 대쟁투 총서(예언의 신)의 가르침 속에서 그 진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대쟁투 총서의 기반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 하고자 한다.

세천사 기별과 남은무리의 사명

1. 세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의 현대기별이다.

계 14:14-20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과 마지막 추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난다

이 사건의 바로 앞에 나타나는 세천사의 사업(계 14:6-13)은 필경 이 지상의 마지막 사업임에 틀림 없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9-11)

1).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정의

“나는 한 가지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는 첫째, 둘째, 세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였다. 그 천사들은 공중에 날아가면서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이들은 온 우주와 조화되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남녀들이** 세 기별을 차례대로 선포하고 있다. (자서전 429.1)

2. 능력있는 셋째천사들로 대표된 교회가 힘이 나약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2-14)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히 6:1-3)

1). 셋째천사기별에 무지한 남은 백성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진행에 관하여 너무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게시**로서 나타내 보여 주셨다.”(2기별 392)

2).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달렸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 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始終)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초기, 258-259)

3). 삶과 죽음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교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그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기별은 삶과 죽음의 기별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그 현저한 힘**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온 세계를 통하여 그것들은 침례 요한이 유대 백성을 위하여 한 것과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 (문서 387)

4). 예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 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긴요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펜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예언들의 적용성(適用性)**을 증거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출판물들이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사실들을**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해야 한다.”(2기별, 104, 105)

3.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 계 12, 13, 14장의 연계 연구
2. 계 12, 13, 14장에 나타난 구속의 역사의 전쟁사 연구
3. 남은무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원무기 예언의 신 연구

4. 세천사의 기별의 연구 방법과 과목별 연구 순서

○ 과목별 연구 순서

- 제 1 과 루스벨의 타락과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과 후속 조치들
- 제 2 과 우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구 창조
- 제 3 과 범죄와 구속의 경륜
- 제 4 과 하나님의 율법과 인류의 운명
- 제 5 과 하늘과 땅의 평화와 자비와 공의로움을 세우는 하나님의 비밀 공개
- 제 6 과 성소의 예증을 통한 완전의 길
- 제 7 과 하나님의 농사 예증을 통한 완전의 길
- 제 8 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 제 9 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역할들(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왕)
- 제 10 과 1844년의 재림운동의 경험과 최후의 속죄와 완전
- 제 11 과 마태복음 22장, 25장의 비유를 통하여 배우는 조사심판
- 제 12 과 1888년의 기별과 믿음의 의와 셋째천사의 기별
- 제 13 과 인간 품성 개발과 성전 건축
- 제 14 과 영과 혼과 몸에 관한 연구
- 제 15 과 **조사심판에 대한 연구와 죄의 도말**
- 제 16 과 조사심판과 대속죄일의 경험
- 제 17 과 늦은비에 관한 연구(라오디게아 기별과 예수믿음, 늦은비)
- 제 18 과 계시록 12, 13, 14장의 상호 대조 연구.
- 제 19 과 구속의 역사 도표 연구

5. 과목 연구에서 다루어질 중요 내용들(품성 완성)

1). 인간의 품성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진행되는 순서

1. 신성과 인성의 연합
2. 품성의 연단-연단된 금으로 하늘 예루살렘의 재료들로 건축
3. 성도들의 품성으로 완성된 예루살렘을 일컬어 예수님의 신부라 명함
5.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신랑의 자격으로의 예

수님

6. 성도들을 하늘 혼인 예식장으로 초대 - 첫째 천사 운동(밤중소리)
7. 성도들을 위한 준비된 예복
8. 최후의 속죄를 위해 예복조사(조사심판)
9. 그 결과 죄의 장본인인 사탄의 거짓이 드러남
10. 남은무리의 모든 죄를 사탄에게 옮길 준비가 끝남
11. 죄의 모든 기록을 도말함-예수님의 품성이 온전히 재현됨- 하나가 됨
12. 예루살렘과 결혼식 함
13. 축복이 선언됨
14. 하나님에게서 나라를 받음

2).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순서

1. 재림운동-실망
2. 다시 예언함 - 보라 신랑이로다 - 혼인손님으로
3.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감
4. 자신을 깊이 살피는 일 - 예복을 조사함 - 조사심판
5. 대속죄일의 경험 - 최후의 속죄
6. 죄의 도말(죄가 기억되지 않음)
7. 늦은비
8. 힘있는 셋째천사가 됨
9. 온 세상에 경고의 음성으로 안식일을 선포함
10.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짐

6. 계시록 14장에서의 사건 연구 분석

1). 개론적 연구

재림전 사건 중 그 핵심은?

계 14:6-11에는 큰소리로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둘째는 기별에 응하지 않는 결과로 타락하여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셋째는 영적으로 무너진 바벨론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경고 예언한다.

그러므로 결국 기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천사**에게 있다.

계 14:6, 7의 첫째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worship)하라 하더라”

요약하면

심판의 시간이 왔다.----- 시기

그러므로 **창조주께 예배하라**(창조의 기념일을 수호하라) ----- 때 (안식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으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 준다. 그 계명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 준다. 넷째 계명은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0, 11)라고 말한다. ...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쟁투 436,7)

계 14:6, 7절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째천사의 기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심판이 과연 어떤 심판인가. 흔히 우리는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일어날 심판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 여러 곳에서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심판날을 걱정하십시오”(행 17:31),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벧전 4:17) 특별히 다니엘 7장 9~14절에 보면 심판의 장소와 그 광경을 묘사하였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라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신 때임을 알 수 있고 “책들이 펴놓였더라”하였고, 계시록에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1) 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하여 책들을 조사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조사의 개념은 알곡과 가리지를 골라내는 것이나,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조사하신다는 것이나, 또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집 손님들이 예복을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것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 때가 되매 심판이 시작되었다.
-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졌다.
- 인자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
- 책들을 조사하여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더라.

그러므로 이것을 엘렌 화잇은 조사(Investigative) 심판(Judgment), 즉 조사심판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 해석에 대하여 수많은 도전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사심판이 어디에 근거하여 나왔느냐” 그리고 “이미 용서 받은 신자가 무엇을 또 조사 받는다는 말인가?”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은 끝났다” 등 본 장(계 14)의 심판에 대하여 개신교를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부정해 왔다.

교회 안에서도 이 주제 대하여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성소에서의 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일이 어떻게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야 할 기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이 구절 속에 담겨진 말씀의 비밀은 무엇인가? 좀 더 심층적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성경에서 언급한 이 심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화잇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선지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단 7: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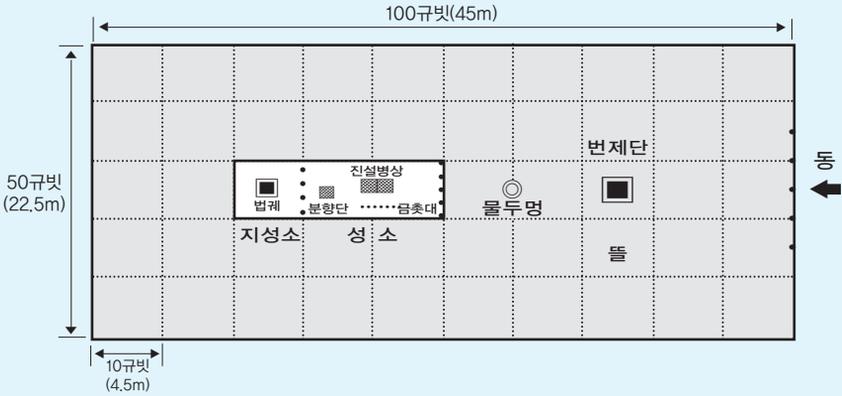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 (시 90:2)라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수종하는 자와 증인들로서 그 큰 법정에 열석하게 된다. “내가…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않을 것이니라”(단 7:13, 14).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에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쟁투 479)

2). 모형적 성소제도 속에서 배울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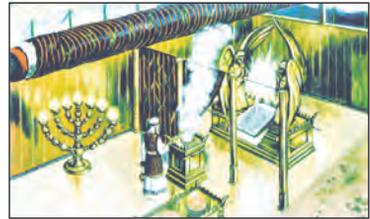
먼저 하늘의 모형 지상 성소제도에서 배울 교훈을 찾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의 집중은 성소에 있었으며 일년중 그 최고의 관심은 대속죄일에 있었다.

예언의 신에 기록 되기를

“지상 성소의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였고,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성소의 정결을 위해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행하였다. 죄를 누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 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했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 17:11).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죄인의



매일의 봉사



대속죄일의 봉사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레 10:17)라고 한 지시대로 제사장이 그 고기만 먹었다. 그 의식들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였다.

그와 같은 일은 일 년 내내 매일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

에 있는 회막을 위해 그같이 할 것이요.” 또한 단을 위해서도 속죄가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레 16:16, 19).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일 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속죄일에 두 마리의 새끼 염소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레 16:8)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또한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려야 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레 16:21, 22). 아사셀은 다시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오지 못했고, 그것을 끌고 간 사람은 그 의복을 빨고 목욕한 후에야 장막으로 돌아왔다.”(쟁투 418)

이스라엘 성소제도에서의 경험 중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한 행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린양의 피를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수 있었는지 여부의 최종 판결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탄간의 투쟁의 이슈이기도 하다. 율법도 흠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도 온전하고 이스라엘도 완전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지면, 피를 뿌려 성소를 정결케 하고 결국 죄를 그 장본인인 아사셀(사탄)에게로 전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조사심판은 그리스도와 사탄간의 투쟁의 쟁점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며 지구의 구속 역사를 마치는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 원형인 대속죄일인 오늘날도 남은 백성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탄은 남은 무리의 용서 받은 죄를 가져와서 송사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계속 송사한다.

하늘 지성소의 피뿌림 즉 정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들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 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이룬 죄악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간의 증오심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

인가?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은 이 일을 하실 수 없나이다.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한다.” (선지 418)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록들을 조사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 받았음이 확증되고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었음으로 완전하다”는 판결 선고를 내릴 것이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쟁투 483)

그리하여 다음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3-26)

그러므로 조사심판은 사탄의 송사를 영원히 침묵시키며 죄로 부터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사심판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각시대의 대쟁투 28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장을

속독할 것)

1. 심판의 표준인 율법의 공정함을 정확히 제시하며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께 대한 예배의 표징인 안식일을 드러낸다.
2. 이스라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 정당했는가를 공정하게 조사 확인하여 보혈의 능력을 확인한다.
3.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고 그 백성도 의로움이 드러난다.
4. 사탄의 거짓의 진위를 율법 앞에 심판한 후 사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한다.
5. 그리고 죄를 이스라엘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키는 명분을 찾는다.
6.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속죄 즉 죄를 도말하기 위함이다.
7. 늦은비를 부어 능력으로 온 세상에 안식일을 선포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고하는 셋째천사로 만든다.

7. 조사심판장으로의 소환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누가 조사심판을 받으며 어디서 어떻게 죄인들을 소환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심판이 있으려면 죄인을 먼저 소환해야 한다. 성경은 죄인을 다시 조사하려고 부른다고 하지 않고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먼저 어린양의 혼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어린양의 혼인잔치란?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초기, 251)

신랑 : 예수 그리스도

신부 : 새예루살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9,10)

장소 : 하늘 지성소

때 : 예수님이 지성소 계실때(은혜의 기간이 남겨져 있음)

2).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결혼하시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품성 건설이 완성되는 돌(금)마다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된다. 고전 3장 10-15절에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행적 58장 '승리하는 교회' 장을 읽으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찌니라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 3:10-15)

예언의 신에 언급 되기를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시 144:12)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행적 592). “유대인들의 대성전은 산에서 채석되고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다. 그 돌 하나 하나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날라오기 전에 깎고, 다듬고, 시험해보고 난 후에 성전의 제자리에다 갖다 맞추었다. 모든 돌을 그곳으로 다 가져왔을 때 성전은 도끼 소리나 망치 소리 하나없이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이 영적 성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빈부귀천 유무식의 모든 계층에서 모아들인 자재들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망치와 끌로 갖다 맞추는 죽은 자재들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에서 채석해 낸 산 재료들이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크시고 완전하신 건축자께서 지금 같고 다듬어서 영적 성전 각 곳, 자기 자리에다 갖다 맞추고 계신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성전의 모든 부분이 완전할 것이요, 그것은 천사와 사람들의 칭송거리가 될 것이니 이는 그 건물의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그러니 아무 사람도 주님 위에 떨어져서 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지 말라.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모든 사상과 습관이 완전하지는 못한 법이다.”(SDA선교 약사 136, 137. certain by EGW).

3). 예루살렘과 결혼하시는 것은 우리의 품성과의 결혼이며 곧 우리와의 연합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교회와의 연합이기도 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계 19:7-8)

“**혼인으로써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 되었으며** 예복은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실물, 307).

4).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함과 하늘 지성소로의 초대가 어떻게 동일한 사건인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계 19:9)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계 19:7-9).

5).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손님 초청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계 19:9)

“비유에 의하면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마치고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쟁투 428)

“비유에 의하면, 신랑이 올 때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 준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라고 불린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계 21:9)라고 말했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계 21:10)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고 있다(계 19:9 참조).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엿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사건적 순서를 도해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순서는 1844년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먼저 해석할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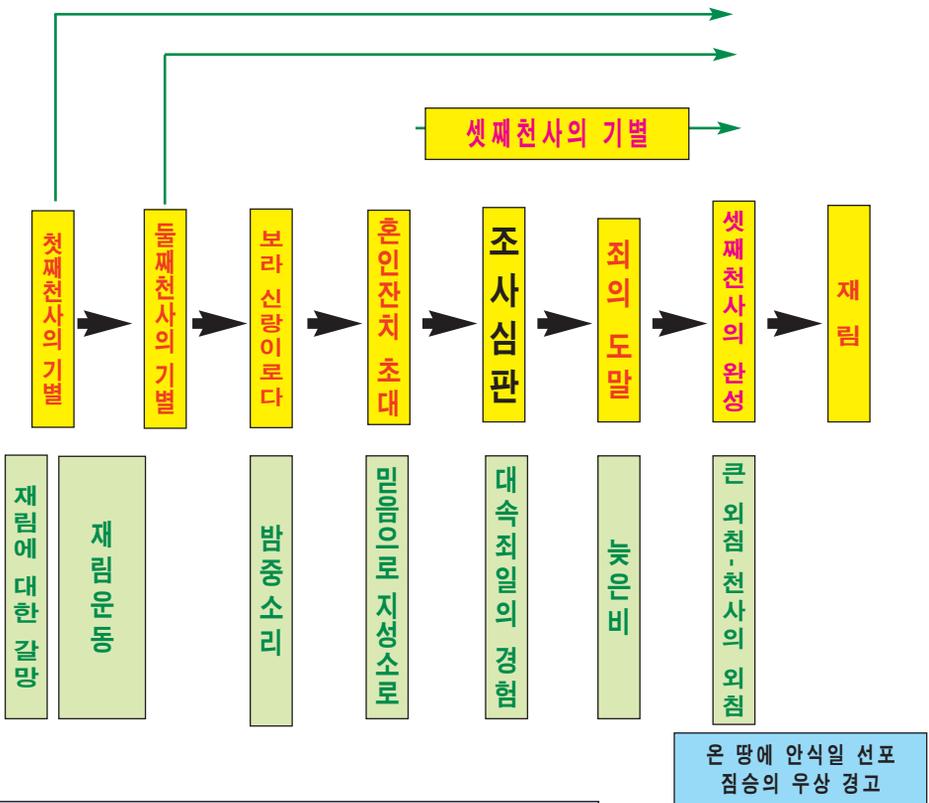
오늘날에도 개인적인 경험으로서의 순서이기도하다.

첫째, 둘째, 셋째천사는 계속 함께 날아간다.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비를 부어 주셔서 죄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능력있는 셋째천사를 만드시는 과정인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하늘 조사심판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단 7:14; 계 21:2)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앉”(마 8:11; 눅 22:30)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쟁투 427)

“혼인 예식을 위해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나아가셨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눅 12:36)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쟁투 427)

6). 손님들에게 제공된 혼인 손님 예복 - 신랑이 와서 혼인 예복을 먼저 조사함-이것을 조사심판으로 일컬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 어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1-14)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해 손님들을 살펴보는 것이다(마 22:11; 계 7:14 참조).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

쫓김을 당하지만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 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 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쟁투 428)

이상의 연구와 같이

- 조사심판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 성소로 옮겨진 우리의 죄를 아사셀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결과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이다.
- 죄의 도말은 하늘에서의 사건이요 땅에서는 늦은비 사건인 것이다.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 그리고 늦은비

연구 범위 목적 :

하늘에는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복음의 목적은 그 모든 죄의 기록이 기억되지 않도록 기록을 도말함에 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성소에도 기록되어 있다. 먼저 우리의 성소에서 이 기록이 도말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죄를 도말하고 계신다. 이 장에서 이 두 관계를 연구 범위와 목적으로 삼는다. 본장의 일부분은 “품성 완전과 지성소”라는 소책자에서 부분 인용 발췌 하였다.

주요 참고 서적 :

각 시대의 대쟁투 28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품성 완전과 지성소” (소책자)

1. 지성소의 경험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히 10:1, 18, 22).

중생이란 그저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완전한 품성에 이르기까지 매일의 생애에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신자는 살아계신 그의 주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자라나야 한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과 떡상과 일곱 등대는 기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험과 성령의 기름과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나타낸다. 이 세가지 통로를 통하여 성화를 위

한 거룩한 생명이 매일 부여되는 것이다.

매일의 회개와 자복과 개심을 위한 성화는 완전한 품성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 안에서 완전한 품성의 목표를 향하여 자라나는 과정이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 가운데 맺힐 것이다.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지고 그대의 사랑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일에 있어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실물, 65).

1888년 기별자들 역시 이 진리를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로서, 죄의 몸을 죽게 하고 죄짓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의를 섬기도록 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 이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자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며, 지혜의 성장이며, 하나님을 아는 품성의 성장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이다. 그러므로 이 성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새로 태어날 때 인간안에 심기워진다.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얼마나 많은 일에서인가 그것은 ‘범사에’ 그렇게 자라나야 한다”(믿음의 의에 관한 연구, 75, 77).

“요한은 참된 성화의 축복을 누렸다. 그러나 그 사도는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을 주시하라. 그는 완전을 구하고 있다. …”(성화 48).

어떤 사람은 완전이란,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만 부여하신다면 일상적인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 하신다.

“성화란 한 순간, 한 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에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서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행적, 560-561).

일생 동안의 성화의 과정이 신자들에게 완전의 경험을 가져다 주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視力)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정로, 64).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실물, 160).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행적, 561).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저희가 얻은 큰 지혜는 죄에 관한 지식과 죄책감이었다’(살아 38, 95년 신판). 죄책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에 없어진다. 그러나 죄에 관한 지식은 죄악의 마음을 품는 실제적인 경험이다.” (5증언 503 참조).

“악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람의 상태 변화와, 또한 이런 상태에 빠진 인류를 교육시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계속하여 달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교육, 14).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성질을 물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기르고 있다. “반복하는 모든 죄” 마다 인간의 마음에 죄악에 관한 지식을 더욱 인상 깊게 해 준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에 … 새겨졌다”(렘 17:1). 물론 하나님께서도 죄에 관한 기록을 하늘 책에 보유하고 계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죄에 관한 기록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죄의 기록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다음 예언의 신의 인용구절들을 주의해 살펴 보자.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 우리의 회개는 그의 전진하는 발걸음마다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밋게 보리라(겔 36:31)’”(실물, 158).

“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도 있으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영혼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소망, 302)

“지금은 그대가 회개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의 이름에 용서가 기록된다고 할지라도, 그대는 두려운 상실을 겪을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영혼에 낸 상처는 남게 될 것이다”(목사, 447).

“사상(생각)의 성격은 그 심령에 흔적을 남긴다”(교기, 195).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쁜 습관과 더불어 심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불신과 그의 품성의 결합과 자신의 자아 방종의 경향을 정복해야만 한다. 빛과 경고와 호소에 대한 그의 오랜 저항은 그의 생애에 흔적을 남긴다. 따라서 주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실지라도 그는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다”(리뷰, 1891. 1. 13).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에 관한 참된 기록이 있음을 예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모든 죄마다 마음에 죄에 관한 지식을 인상시킨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개심과 매일의 성화의 경험을 통하여 죄에 대한 습관과 배양된 경향을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죄의 지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품성은 소위 “매일”의 경험 곧 성소의 경험에서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개심의 경험이나 매일의 성화의 생애에서도 완전한 품성을 경험할 수 없다면, 언제 어디서 완전을 이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 주께서 전에 나타내시지 않았던 어떤 은혜의 원천으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 우리는 “살아 있는 의인이 은혜의 기간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1 기별 66)는데 주의하여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완전의 경험은 중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 “매일”의 성화되는 과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향로를 집어 던지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가 “씩을 몸”을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옳을까? 아니다, 절대로! 인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업은 모두 예수 재림 전에 마쳐져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썩을 몸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을 닮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우리에게 도덕적인 품성의 변화는 없다”(리뷰, 1888. 8. 7).

그렇다면, 완전한 품성의 경험이 개심할 때 되는 것이 아니요 정상적인 성화의 과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은혜의 기간이 마칠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예수 재림시에 육체의 변화와 함께 되는 것도 아니라면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히브리 8-10장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히 8:1).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 8:10, 12).

하나님이 다시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보장은 하늘 기록에서 죄를 도말함과 같다. 이 죄의 도말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케”**(히 9:9) 하는 것이요, **“죄를 없게”**(히 9:26) 하는 것이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히 10:2)는 것이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히 10:19)는 상태이다.

이 경험은 옛 이스라엘의 성소의 경험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성소봉사에는 세번의 피뿌림이 있었다. 첫째는 번제단이요 둘째는 분향단이며 셋째가 속죄소였다. 대속죄일에 백성이 모여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하며 살필 때에 이 최후의 속죄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피뿌림으로 이루어졌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경험을 사도행전 3: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했다. 또한 하늘성소에서의 이 최후의 피뿌림을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약속하셨다. 이 피뿌림은 지성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 **속죄소의 피뿌림이란 하늘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요, 땅의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 뿌려질 최후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즉 하늘 지성소로 초대한다.**

2. 완전한 품성과 지성소와 죄의 도말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해 한 백성을 완전하게 하는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는 지성소를 가리킨다.

“셋째 천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기별을 끝마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키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였다. …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향해 하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 셋째 천사는 그들로 지성소를 보도록 가리키고 있었다. …”(초기, 258).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본다면, 셋째 천사가 요구하고 있는 그 경험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성소에서는 성도들을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시킬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사장이 일년에 한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성소를 정결케 한 것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 가셨다”(초기 257).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최후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레 16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날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며 마음을 깊이 살피면서 성소 주위에 모이라는 요구를 받았다. 자신의 심령을 찢지 않는 자는 누구나 백성 중에서 “꿨쳐짐”을 당하였다(레 23:27-30). 이 상징적인 제사제도에서 이스라엘의 죄만이 성소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요 대속죄일의 요구에 응한 자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레 16:30).

이와 같이 오늘날 계시록 14장의 기별이 우리에게 올려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 이 말씀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관하여 잘 알게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며 또 대속죄 사업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를 요구한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온 진영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오늘의 이스라엘에게도 다음과 같은 나팔 소리가 들려 온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에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욥 2:15-17).

주님의 종은 요엘의 이 구절에 관하여 남은 백성들 가운데 두 무리의 특성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하였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붉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 어떤 사람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것처럼 보였으며. …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심령을 찢지 않는 자들은 ‘끊쳐짐’을 당할 것이다).…”(1증언 179-181).

이 대속죄일에 우리는 회개하며 심령을 찢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이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업을 이해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이다. 그의 백성이 깊은

회개와 겸비한 심령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spirit- 영)”(속 12:10)을 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소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에게 심령의 고통이 이르러 오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예언의 신의 구절이 있다.

“여호수아와 사자에 관한 스가랴의 이상은 속죄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특별히 강하게 적용된다. 마지막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사들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어는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사자 앞에서 탄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남은 교회는, 마음의 통회와 열렬한 기도로써 그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죄악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안다.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다.

시험하는 자는 마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곁에서 있던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곁에서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 그들의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을 더럽혀 온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들의 배은 망덕의 죄,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더러워진 그들의 오점은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영혼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 사단은, 그들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제시하고, … 그는 말한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의 위치와 나와 연합했던 천사들의 위치를 차지할 자들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동안,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왔는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해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유익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의 생애를 특징지워 온 죄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악의, 피차간의 증오를 쳐다보라”(5증언 477, 478).

우리는 모든 죄가 하늘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심령에도 인상, 표, 기록, 죄악에 관한 지식을 남기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심판에 임할 때 그들은 그 모든 것 즉 죄를 깨닫는다. 고대 대속죄일에는 해마다 깊은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그 해의 죄를 되돌아 보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 주변에 모일 때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3. 은총과 간구하는 영(SPIRIT, KJV역) 을 부어 주리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5). 보라! 광야의 예수, 겐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하는 고민의 부르짖음을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정로 12, 13).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슥 12:10-14).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사 4:4) “은총과 간구하는 영”(슥 12:10)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생애에서 범죄한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심

자나의 고통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나의 독자,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곡할 것이다. 그 손에 박은 못은 내가 박은 것이며 그 옆구리는 내가 찢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압도적인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고백한다. 내가 용서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다.

“성전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거대한 건물이 한 개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것을 알았고 그 기둥에는 온 몸이 상하여 **피투성이가 된 어린양**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 들어온 무리들은 이 어린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성전 안에 들어온 이들은 모두 그 어린양 앞에 나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였다.

그 어린양 바로 앞에는 높다랗게 좌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매우 행복해 보이는 한 무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천사들의 노래인 듯한 즐거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양 앞에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유쾌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초기, 79).

“기둥에는 온 몸이 상하여 피투성이가 된 어린양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 들어온 무리들은 이 어린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애통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슥 12:12) ‘여호와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을 2:18) 용서하실 것이다

이미 전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린 자들만이 크게 흔들리고 고민하는 경험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령을 찢고 괴롭게’ 할 때, 예수께서는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을 유의하실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해 최후의 속죄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슥 13:1).

여호수아와 천사에 관한 기록을 계속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종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슥 3:4)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진다. 멸시받은 남은 자들은 세상의 부패에 의하여 더 이상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것에 보존된다. ...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간계에서 영원히 안전해진다. ... 사단이 그의 비난을 강요하고 이 무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곳저곳으로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5증언, 475).

전 페이지의 화잇의 꿈의 계시를 다시 읽어 보면

“그 어린양 바로 앞에는 높다랗게 좌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매우 행복해 보이는 한 무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천사들의 노래인 듯한 즐거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양 앞에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유쾌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초기, 79).

여기에서의 용서는 도말을 의미하며 유쾌한 사건은 늦은비(유쾌하게 되는 일, 새롭게 됨, KJV)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심판의 목적은 누가 영생을 얻을 가치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생애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최후의 속죄를 하여 그들의 죄를 도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최후의 시험을 거친 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영원히 고정시키신다. 심판을 통하여 얻은 승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곳의 영감의 말씀으로 설명되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하리니 ...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시 72:2, 4).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레 16:30).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 하리라”(사 43:2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렘 50:20).

“... 최후의 속죄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죄가 하늘 기록에서 도말되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부조 358).

“...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2, 14).

“그들의 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도말되었으므로 그들은 그것들을 다시 기억할 수 없다”(쟁투 620).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예수의 특별한 봉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증보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품성, 즉 완전한 은혜의 사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괴롭게하는 백성을 성소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름을 가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며, 또 최후의 속죄 사업은 그들을 위하여 하실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의 성질에서 죄악에 관한 기록이나 의식은 도말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완전하고 죄없는 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5. 그러므로 늦은비는 죄의 도말 후에 내린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늦과 황충과 팻종이의 먹은 횃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욘 2:23-25).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행 3:19, 20)

최후의 속죄와 죄의 도말과 늦은비는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께서 늦은비를 보내심으로 “메뚜기와 늦과 황충과 팻종이의 먹은 횃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인간 마음판에 사단의 기만으로 인하여 **얼룩진 죄악의 기록들을 도말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죄악의 기록의 도말 후 이 땅에 늦은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늦은비의 축복은 남은 교회가 최초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고 탄식하며 성소에 최초로 모인 집단체이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은 세상과 교회의 타락을 경고하고 큰 음성을 발하며 안식일을 크게 외칠 것이다. 그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최후의 분리가 일어난다.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은 산자의 조사심판을 받아 죄의 도말을 받고 늦은비를 경험하게 되므로 인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품성을 가장 충만히 반사할 것이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게 될것이다. 마지막 한 영혼이 마침내 인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향로를 던지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 선언하실 것이다.

요약

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지라도 마음 속에 죄악의 지식이 남아 있다.
2. 이 죄악의 기록들은 아버지의 심판책 속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아래 회개한 영혼들의 이름 아래 용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죄악의 지식을 도말하고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4.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동안 우리들은 영혼을 괴롭게 한다. 이 은혜와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5.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죄의 기록인 누더기 옷에 굴욕을 느끼는 것이며 그리하여 큰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6. 주님께서는 피흘린 손을 드시고 나의 피 하시며 아버지께 공활하심을 구한다. 드디어 명령이 내리며 그 옷을 벗기라고 하신다.
7.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활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짐이다.
8. 죄의 최종 도말 후 그들은 옛 죄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
9. 그들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중보자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 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 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합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

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는 학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욱 안이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 곧 우리가 택하기를 좋아할 그런 길이 아니라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그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이루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 밖에 없다. …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세계를 바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쟁투, 492, 493, 496).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조사심판 요약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로 초대된 남은 무리는 조사심판정에 서게 된다. 이 세천사 기별의 궁극적 목표는 구속의 역사를 마치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 과정인 것이다.

- 조사심판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온 세상에 안식일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다.
- 조사심판 과정을 통하여 남은무리는 대속죄일에 원형적 경험으로 인도된다. 이때에 임하는 간구하는 성령(속 12:10)의 은혜는 “내가 곧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속 3:4)는 은총을 얻는 것이다.

-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함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온 우주에 드러내려 함이다.
- 조사심판은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불러와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받은 죄의 상처와 기억과 기록들을 모두 지워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죄를 못짓는 것이 아니라 안짓는 것이다.
- 조사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주에 드러내는 것이다.
- 조사심판은 온 우주 앞에 사탄의 부정을 공개하고 그에게 죄를 정당히 전가하기 위한 최종 과정인 것이다.
- 조사심판은 남은무리에게 늦은비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이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조사심판 없이는 인류의 구속사업을 마치기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초기 259)

세천사 기별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여호와여 우리를 공휼히 여기소서”

연구 범위 : 우리는 지금 1844년 이후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이 이스라엘의 표상적 경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요구한다.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회중의 의무는 오늘 우리에게 엄숙히 적용된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 우리의 모든 죄는 고백되고 하나님의 공휼함을 얻어야 한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이 장에서 대속죄일의 회중의 의무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운다.

본 장은 S. N. 헤스켈 목사의 “십자가와 그 그림자” 중, 30장 “대속죄일의 회중의 의무”의 문장들을 인용하면서 중간 중간 보충 예언의 신 인용구를 첨가하였으며 편의를 위해 소제목들을 붙였다.

주요 참고 서적 : 스티븐 N. 헤스켈 저, 십자가와 그 그림자 (시조사 발행).

대속죄일의 회중의 의무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레 23:27-31).

“하나님께서서는 고대의 당신의 백성이 연중 매일 당신을 충실히 섬기기를 기대하셨고, 또한 친히 그들의 섬김(제사)을 받으셨다. 그러나 대속죄일이 이르

러 왔을 때, 그 날 동안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요구 사항들이 부과되어 있었으며, 만약 그들이 그것들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제사를 받아 오셨으나, 이제 원형적인 대속죄일이 이르러 조사 심판이 하늘 성소에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원형적인 회중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시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그 원형의 뜻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써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피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浮虛)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쟁투 489).

고대에 회중은 단체적으로 가납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 경험이었다(레 23:29, 30).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의 선조들처럼 행함으로써 자아 만족에 빠져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서 특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저들은 저들의 경우가 하늘에서 결정되고 있는 동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사단은 육체적으로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더 연약한 마지막 세대를 향해 그가 육천년 간의 전투에서 획득해 온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있다. 조사 심판에서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자들은 한동안 중보자 없이 살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이 지상에 살았던 다른 어떤 무리의 경험과도 다른 것일 것이다. 하나님께

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마지막 세대에게 특별한 의무들을 명하신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 바, 이는 그들이 원수의 공격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방어 되고 그의 꾀계에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 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막 13:33).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 될 것이다”(쟁투 490).

고대의 봉사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대속죄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의 죄들은 대제사장에 의하여 아사셀 염소에게 고해지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짐을 당했다(레 23:28-30). 원형적인 대속죄일, 즉 조사 심판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형적인 회중에게 명하신 일을 개인 스스로가 소홀히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경우를 변호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마침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져 버린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 2:17). 만약 우리가 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지시하신대로 기꺼이 행할 것이다.

대속죄일 —곧 표상적인 구속 사업이 수행되던 이십사 시간 동안, 그리고 실제적인 봉사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기간— 에 고대 이스라엘의 각 개인에게는 네 가지 일이 요구되었다.

- 1)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 2)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 3)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 4)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쉼 안식일이라”(레 23:27, 28, 32) 등이다.

1.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그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다. 백성들은 종교적인 예배를 위하여 모여야만 했다. 바울은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로부터 곧 나오시게 된 이때에 종교적인 회집을 폐하려는 개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1-25).

하나님을 경배하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일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의 악”(또는 “악한 양심”)을 가졌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로부터 곧 나오실 것에 대한 신앙을 잃어 버렸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일에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두 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친히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다(마 18:20). 이 첫번째 요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영적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영적 온도계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결석한다면, 그의 영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2.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각 개인은 자기 영혼을 “괴롭게” — 자기 마음을 살피고,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치도록 — 해야만 했다. 이것과 연관된 것은 음식을

금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너무나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날에도 유대인은 칠월 십일에 금식하고 있다.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자기의 이름이 틀림없이 그 큰 심판대 앞에 제시될 것을 깨닫는 개인은 그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들로 마음을 채움으로써,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신량이 온 것과 문이 닫힌 것, 다시 말해서 일이 다 끝나고 자신이 차지할 몫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발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사에 관하여 자주 명상할 필요가 있다.

표상적인 봉사에서 뜰에 있던 회중은 대제사장의 제복에 달린 금방울들의 땡그렁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봉사를 따라 행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진도를 알려 주기 위하여 하늘과 땅과 열국들 사이에 징조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런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분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다”(눅21:25-33; 마 24:29-35).

원형적인 대속죄일은 상당한 햇수의 기간에 걸쳐 있다. 표상에서는 이십사 시간의 금식이 요구되었다. 이 하루 동안에는 식욕을 완전히 억제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원형적인 기간 동안에 행사해야 할 자제에 대한 표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저희의 식욕의 지배자가 되고 몸을 쳐 복종하게 하도록 계획하신다(고전 9:27). 사단은 식욕에게 고삐를 늦추도록 하여, 그것이 사람을 주장하게 하려 한다.

신실한 역군들이 부절제의 홍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너무나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술취함과 범죄가 놀라운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시작되던 해인 1844년에는 오직 남자들과 소수의 여자들만이 담배의 노예였으나, 지금은 수천만 명의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여자들이 그 불결한 습관에 중독되어 있다. 이 나라에 양조장과 술집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정 음료들이 수천만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더욱 명료한 지성을 가지게 되고, 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저들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좇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들이 자신의 식욕의 노예가 되는 대신에 그것의 지배자가 되기를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요구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식욕이 갈망하는 것들을 스스로 기꺼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인가! 선지자 이사야는 여러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 형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굶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사 22:12, 13). 이 세계의 현 상태에 대한 얼마나 생생한 묘사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저들의 영혼을(자신을) 괴롭히고, 저들의 식욕을 조정하고, 좋은 피와 영적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명료한 정신을 제공하는 음식을 취하도록 요청하시지만, 저들은 이것을 순종하기는 커녕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행로의 궁극적인 결과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사 22:14).

구주께서는 인간의 생애의 기록들이 조사를 받고 개인들이 영생에 합당한지 불합당한지 판정받고 있는 시간 동안에 식욕에게 고삐를 늦추는 죄악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주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닷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34, 36). 이 경고는 “방탕함”(과식)과 “술취함”(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원형적인 대속죄일 동안에 그들의 음식의 양과 질 모두에 주의하도록 계획하신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을 과식함으로써 마음을 흐리게 하고 건강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탐식하는 자와 술취하는 자는 같은 부류에 속한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잠 23:20, 21).

우리의 첫 부모는 식욕의 시험에서 실패하였다(창 3:1-6).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마 4:3,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식욕의 완전한 지배자가 되는 것—본성적인 식욕이 아무리 갈망한다 하더라도 해로운 음식은 모두 금하는 것—과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구세주께서는 지상 봉사에 들어가실 때, 그분께서는 식욕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년 시절부터 당신의 욕망을 제어하도록 배워 오셨다.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사야는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난외주)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하였다(사 7:15). 그분의 식사 방법은 그분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계발시켜 주었다.

예수께서는 영적인 힘을 계발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잡수셨다. 꿀을 먹는 일에 관한 성경절이 셋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하면 꿀 먹기를 위한 규칙이 된다. 이 규칙은 모든 좋은 음식에 다 적용될 것이다. 그 성경절들은 다음과 같다.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잠 24:13).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잠 25:16).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잠 25:27) 위의 교훈에 따라서 오로지 좋은 음식을 오직 족하리만큼 먹는 사람은 좋은 건강과 명료한 정신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좋은 건강을 향유하고 그 영혼이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신다(요삼 2). 사단은 두뇌를 흐리게 하고 건강을 파괴하는 일을 기뻐한다. 그 원형을 이루는 사람들은 구세주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하여 모두가 자신의 식욕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3.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대속죄일의 화중에게 지시하신 세번째 요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것이었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들은 제단 위에서 불사워졌다. 실제에서 우리는 황소나 수양의 번제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단 위에서 불사워진 예물의 실체를 성취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분께서는 “온 영과 혼과 몸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살전 5:23).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전 생명이 제단 위에 놓여져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용될 준비가 되기를 바라신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없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거하시고, 저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 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 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풀리어지게 될 것이다”(정로 70).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4.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속죄일은 고대의 회중에 의하여 예식 안식일로 지켜졌다(레 23:31).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온 생각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집중되었다. 하루 종일토록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표상은 이와 같았으나 원형적인 대속죄일에는 ‘아무도 개인적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업무에 나태”한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롬 12:11). 하나님께서는 만약 저들이 하나님의 일과 봉사를 먼저 구하고 저들의 일시적(세속적)인 관심사들을 다음으로 구함으로써 그 원형을 성취한다면, 일시적(세속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저

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다(마 6:31-33).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제시되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닳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 21:34).

사단은 그의 많은 기만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함정에다가 더 많은 호의적인 사람들을 빠뜨려 넣기를 잘 한다. 그는 자주 선한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르기를 집안의 매일의 염려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이리하여 마침내 저들은 영적인 음식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핍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극히 쇠약해져서 원수가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의심과 불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윽고 저들이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위대한 원형적인 회중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 원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집회를 폐하지 않을 자는 누구인가? 식욕을 제어 함으로써 순결한 마음을 간직할 자는 누구인가? 자신의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의 제단위에 올려 놓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고 “생활의 염려”가 하나님의 사업 또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결코 밀어내지 못하게 할 자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사람을 굽어 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 (대속죄일의 회중의 의무 30장 전체 문장 인용)

5. 간구하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대속죄일 회중의 의무는 깊은 회개의 경험에 있다. 우리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큰 죄가 있는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창조주 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 하늘은 내가 얼마나 용서 받지 못할 우주의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신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슥 12:10).

6. 늦은비 성령의 축복

화이트 여사는 우리가 늦은비를 받기 전 반드시 고백해야 할 죄의 큰 경험을 계시로 보았다.

“성전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거대한 건물이 한 개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것을 알았고 그 기둥에는 온 몸이 상하여 피투성이가 된 어린양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 들어온 무리들은 이 어린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성전 안에 들어온 이들은 모두 그 어린양 앞에 나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였다. 그 어린양 바로 앞에는 높다랗게 좌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매우 행복해 보이는 한 무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천사들의 노래인 듯한 즐거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양 앞에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유쾌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초기, 79).

예수를 죽인 장본인으로서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며 최후의 속죄와 함께 늦은비 즉 유쾌한 사건이 나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